

기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와 그들은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게 되면 으레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은 간에 사는 곳을 알면 대략 상대방의 사회계층을 짐작하곤 한다.

서울 강남에 사는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심지어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동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 물어본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은 모두 심각하지 않다. 그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물어보는 단골 질문거리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우리 동네라면, 근처의 임대주택에 산다면 이전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 멋쩍어질지 모른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해진 현실에서 주거지의 위치는 물론, 형태와 크기는 빈부서열을 나누는 척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낯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기에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까 싶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이동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심리이다. 고급

주택자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를 지향하며 깊은 검문검색으로 그들만의 공간을 외부와 절차화 분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시스템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 빅장지르기(eating)는 공간을 분리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는 많은 도시 연구자들이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 확산에 대해 사회 구성원간 소통 약화, 배타성 증가, 위화감 조성 등 사회갈등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는 이유기도 하다.

주거분리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에 '소셜믹스'(social mix)의 개념이 있다. 소셜믹스는 원래 사회 경제적 혼합(socioeconomic mix)의 준말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양한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사회통합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후반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과 그 결과로 한다.

당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지역으로 침체되고 다른 계층이나 인근 지역과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임대주택 건설 반대나 갈등현상이 부각되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서 벗어나 소득수준이 상승하면서 전에 없던 사회계층간의 주거지로 인한 갈등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소셜믹스는 2005년도에 임대주택 개편방안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임주자 경 개편, 소형 평형 의무화 등 다양한 협소로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스며들어 현실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셜믹스가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갈등 때문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건물동을 분리하고 담을 고묘하게 쌓는다든지, 같은 건물 내에서 층수를 구분하여 아래 출입구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뉴스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임대 아파트도 민간임대나 공공

임대나 따라 우위가 결정되고 민간 분양 아파트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아파트 차별 현상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학문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사회과학에서 보가데스 척도(Borgadus Scale)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리감의 측정방법이 있다. 이는 원래 소수 민

족이나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인데 그들을 결혼,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감이란 '우리'(we)와 '그들'(them) 사이를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그들을 길라놓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영화 '기생충'은 사회적 거리감을 '냄새'를 통해 표현하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이다. 영화에서 반지하 주택과 대저택, 낙후한 동네와 부자 동네는 계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그들 간의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이는 냄새로 차별화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한 이분법적 선곡기가 우리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다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구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곡기를 없애고 계층흔화를 위해 물리적으로 섞어놓는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 담장설치로 인한 갈등만 봐도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일부 거주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회망은 저성장시대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난한 노거노인, 돈 못 버는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는 계속 늘어날 태세다.

각자도생하는 척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행복은 그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도 행복해야 한다. 나 혼자만 행복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용한 범죄가 나님이 증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 따돌림 등의 행태였다면 요즘의 학교폭력은 채팅방 sns 등 눈에 보이지 않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대상을 괴롭히는 행태로 '사이버불링'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하는 '떼카',

채팅방을 나가도 다시 초대해 끊임없이 괴롭히는 '카톡감옥', 단체방에 초대한뒤 피해대상을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책감마저 반감되며, 주위에 서는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워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신고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온라인의 파급력으

로 신체폭력 그 이상의 정서적 고통과 상처를 온전히 혼자 감당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사이버상의 괴롭힘도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올바른 대처법을 교육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폭력 없이 바르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나재웅 / 순천경찰서

社說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둘러야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6만8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을 분석해 환경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와 시군구민원포털 등 국민 소통 창구로 접수되는 민원은 해마다 두 배씩 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2016년 7637건, 2017년 1만9144건, 2018년 3만5813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까지 5705건이 접수됐다.

겨울부터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에 민원이 폭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봄철에는 '조종고 애완동물 자제 등 관련 대책 요구'가 3090건으로 접수되었고, 2018년 봄철에는 '학교 내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요구'가 5549건 접수됐다.

지난 겨울철에는 '생활 주변 미세먼지 유발 시설 반대' 관련 민원이 5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을 정리해보니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예방'(24.4%)과 '교육 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대책'(21.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력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부터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신문으로 배우는 오늘의 속담

"처난 재산이 서투른 기술만 못하다"

자기가 지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한번 배운 기술은 죽을 때 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뜻.

대표 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등록번호 광주자00021(일간)

호남신문

대표 전화

(062) 229-60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 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독자투고

온밀한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는 다양한 정보들을 즉시 검색하고 습득하여 공유하면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이러한 순수한 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메신저와 sns 등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